

정현희 경력

여, 1994 (32세)

이메일 guslwjd77@naver.com | 휴대폰 010-2562-4188 | 전화번호 010-2562-4188

주소 (1710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16번길



경력

케어네이션 (주)

총 5년 4개월

학력

한세대학교

대학교(4년) 졸업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포트폴리오

<http://hyunhee.shop>

나의 스킬

HTML5

CSS3

SCSS

Figma

Zeplin

Git

JavaScript

경력 총 5년 4개월

2022.05 ~ 2025.07

3년 3개월

케어네이션 (주) 개발팀 · 매니저 · 퍼블리셔

- React 기반 신규 앱 서비스 구축 및 운영 퍼블리싱
- 기존 앱 서비스 UI 개선 및 유지보수
-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 관리자 대시보드 UI 퍼블리싱
- 웹 접근성을 고려한 시맨틱 마크업 적용
- 반응형 웹(1920px~280px) 및 크로스 브라우저 대응
- Chrome, iOS Safari, Android 실기기 QA
- Git을 활용한 형상관리 및 Jira 기반 협업

2020.09 ~ 2021.12

1년 4개월

(주)한독모터스 리셉션 · 사원 · 고객응대

- 고객 응대 및 예약 관리
- 서비스센터 일정 관리
- 고객 문의 대응

2020.06 ~ 2020.09

4개월

인트로맨(주) 리셉션 · 사원 · 고객응대

- 고객 응대
- 예약 관리

2019.09 ~ 2020.01

(주)루엔페 의상팀, PBMS팀 · 사원 · 스타일리스트

- 방송 의상 준비
- 브랜드별 상품 관리

경력기술서

[프로젝트 1. 신규 앱 서비스 구축]

: React 기반 신규 앱 서비스 퍼블리싱과 공통 컴포넌트 구축을 통해 개발 효율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고, 운영까지 고려한 UI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담당 업무>

1. Figma-Zeplin 기반 화면 퍼블리싱 및 React 환경 UI 구현
2. 버튼, 폼, 모달, 카드 등 공통 컴포넌트 설계 및 재사용 구조 적용
3. SCSS 기반 공통 스타일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 환경 구축
4. Chrome, iOS Safari, Android 실기기 QA를 통한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 호환성 검증
5. Git을 활용한 형상관리 및 Jira 기반 이슈 관리.협업

<성과>

1. 공통 컴포넌트와 스타일 구조를 구축해 신규 화면 개발과 운영 시 동일 UI를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2. 공통 스타일 수정만으로 여러 화면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유지보수 공수와 영향 범위를 줄였습니다.
3.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별 반복 QA를 통해 UI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 2.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UI 개선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반복되는 수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담당 업무>

1. 운영 중인 홈페이지 UI 개선 및 신규 화면 퍼블리싱
2. 디자인 변경사항 및 기능 개선 요청 반영
3. SCSS 기반 공통 스타일 관리 및 구조 개선
4. Chrome, iOS Safari 등 브라우저별 UI QA 및 오류 수정
5. Git을 활용한 변경 이력 관리 및 협업

<성과>

1. 반복되는 CSS 구조를 SCSS로 개선해 스타일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2. 공통 스타일 구조를 적용하여 디자인 변경 시 수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3. 운영 중 발생한 UI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 3. 관리자 대시보드 구축]

: 관리자 대시보드 퍼블리싱과 공통 UI 표준화를 통해 신규 기능 개발과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담당 업무>

1. 관리자 화면(테이블, 검색, 필터, 폼, 모달 등) UI 퍼블리싱
2. 공통 컴포넌트 및 스타일 가이드 적용
3. 반응형 대응 및 브라우저-디바이스 QA
4. Git 형상관리 및 Jira 기반 협업
5. 기획·디자인·개발팀과 기능 개선 및 운영 이슈 대응

<성과>

1. 반복되는 관리자 UI를 공통 컴포넌트로 표준화하여 신규 화면 추가와 기능 개선 시 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 공통 스타일과 컴포넌트 재사용으로 UI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지보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Git과 Jira를 활용해 변경 이력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학력 대학교(4년) 졸업

2013.03 ~ 2018.02
졸업
한세대학교(4년제) 섬유패션디자인
지역 경기 | 학점 3.1/4.5 | 주/야간 주간

2011.02 ~ 2013.03
졸업
태장고등학교 문과계열

경험/활동/교육

2025.11 ~ 2026.05
넥스트러너스 평생교육시설 교육이수내역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 웹서비스 개발

2021.12 ~ 2022.05
강남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교육이수내역
UI/UX 반응형 웹디자인 & 웹 퍼블리싱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포트폴리오 [↗ http://hyunhee.shop](http://hyunhee.shop)

자기소개서

운영까지 생각하는 퍼블리셔, 정현희입니다.

[문항 1.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자 뛰어난 사람보다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지원자 정현희입니다. 같은 업무라도 누구와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 속도와 결과는 물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까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도 기획, 디자인, 개발팀과 협업하며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누가 맞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수정과 오해를 줄일 수 있었고, 협업 과정도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점은 많지만, 모르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할수록 신뢰가 쌓이는 동료이자, 맡은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문항 2. 지원동기]

3년간 웹 퍼블리셔로 근무하며 신규 서비스 구축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 화면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작은 변경 사항도 사용자에게 불편 없이 반영하는 일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자인 변경, 기능 개선, 브라우저별 이슈 대응, 반복적인 QA까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화면 하나를 수정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사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퍼블리싱, QA를 함께 수행하는 만큼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React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과 웹 접근성, 반응형 구현, 크로스 브라우저 QA, Git-Jira를 활용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화면을 구현하는 퍼블리셔가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오류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높이는 운영형 퍼블리셔로 성장하며 회사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문항 3. 직무 경험]

React 환경에서 신규 화면 구축과 운영, QA 업무를 함께 담당하며 서비스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시맨틱 마크업을 기반으로 웹 접근성을 고려해 화면을 구현했고, 운영 단계에서는 디자인 변경사항과 기능 개선 요청을 반영하며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반응형은 1920px부터 280px까지 대응했으며, Chrome에서 1차 QA를 진행한 뒤 iOS Safari와 갤럭시·아이폰 실기기에서 레이아웃 깨짐, 터치 영역, 폰트 렌더링 등을 반복 검수하며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Git으로 관리해 이력을 추적했고, Jira를 활용해 작업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며 개발·디자인팀과 수정 내역 및 우선순위를 함께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경이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문항 4. 도전한 과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눈앞의 작업을 빠르게 끝내기보다, 반복적인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결국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인과 보호자·환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담당하던 시기, S기업 헬스애플에 저희 서비스 일부 기능을 제공하는 B2B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러한 생각을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기존 개발 구조는 변경할 수 없었고, 하나의 HTML을 CSS만으로 '간병인 화면'과 '보호자 화면'으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용자군의 디자인 특성이 달라 페이지마다 예외가 발생하며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먼저 만드는 대신 디자인팀과 모든 화면을 함께 검토하며 공통 컴포넌트와 디자인 원칙을 먼저 정했습니다. 어디까지를 공통으로 사용할지, 어떤 차이를 허용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세부 요소까지 맞춰 나갔고, 초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됐지만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페이지 작업 속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결과 개발 공수는 최소화하면서도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당장의 속도보다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더 큰 효율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기능 추가나 디자인 변경이 발생하면 영향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